

프로크루스테스의 초상 :

로버트 프로스트 초기 시의 화자들

이 삼 출
(경희대학교)

I .

애먼즈(A. R. Ammons)의 「코스즈 만」("Corsons Inlet")에서 화자는 한적한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깨달음을 얻는다. 자연이 뿜어내고 있는 무정형의 에너지장을 반듯한 상자에 우겨넣어 하나의 관념으로 환원시키는 인식행위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이고, 따라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 없는 깨달음'은 화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지는 명백하다. 인간중심주의로부터의 해방이며,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자연이 인간 삶과 관련된 교훈 내지는 초월적 전망을 전해주더라라는 식의 허위에 기초한 인식론적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다(147-51).

인간의 존재론적 지식을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연으로 접근하는 낭만주의의 화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에서 애먼즈의 화자는 무엇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화자들, 특히 초기 시집 『소년의 의지』(*A Boy's Will*), 『보스톤 북쪽』(*North of Boston*), 『산간』(*Mountain Interval*)의 서정시에 등장하는 화자들과 닮아있다. 이들은 자연해석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애먼즈의 화자는 자연

에서 관념을 쟁취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프로스트의 화자들과는 다르다. 프로스트의 화자들은 자연을 읽기 위해 자연 혹은 전원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자연과 접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컨대, 일을 보러 눈 내리는 숲을 지나가든 풀을 베건, 담장을 고치건, 아니면 그저 산책을 나왔건 간에 언제나 인간 삶과 관련된 교훈을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애먼즈의 화자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은 프로스트의 화자들이다.

프로스트의 화자들은 한편의 시로 자랄 모티프를 찾아 자연으로 나가는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화자, 예컨대, 「나 구름처럼 외로이 떠돌았네」("I Wandered Lonely as a Cloud")의 화자처럼 전업시인이 아니다. 이들은 농부로서 노동이 일상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웃 농부들과 달리 노동의 계기 혹은 대상이 되는 자연에서 '할 일은 해야지'('눈 내리는 밤 숲가에 멈춰 서서'), '땀 흘리는 노동이 진짜야'('풀베기'), '생각 좀 하고 살자'('담장을 고치며'), '상실도 인생의 일부야'('나뭇단') 등과 같은 '지혜'를 추론해내는 관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 한편으로 서술해내는 사람들이다. 파운드(Ezra Pound)가 프로스트를 "유행"을 떠나 뉴잉글랜드 시골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정직한 작가"(19)로 소개한 이래 프로스트의 초기 시 화자들이 흔히 농부/시인/철학자로 규정되면서 작가 본인과 동일시되어온 것도 바로 이때 때문일 것이다. 프로스트 초기 시에서 우울과 분열의 정서를 감지한 에이미 로웰(Amy Lowell)조차 프로스트를 모더니즘 실험의 정신이 지배적이었던("intoxicating") 런던의 분위기에 불구하고 뉴잉글랜드의 농부/시인으로서 미국적 정서의 작품화라는 자신의 화두를 버리지 않았던("He went his own way, grew his vegetables, and wrote "North of Boston.") 시인으로 회고한다(103).¹⁾

농부/시인/철학자의 철학적 작업결과는 신학이나 철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초월적 전망과 달리 소박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된 이말소에 걸린 글귀처럼 키치에 가까운 격언의 형태를 띤다. 특별한 형식적 실험을 한답

1) 필립 거버(Philip L. Gerber)는 『로버트 프로스트 비평선』(*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의 서문에서 프로스트를 찬양한 사람들이나 비판한 사람들 모두 프로스트의 '미국적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시고 텍스트의 구조를 복잡하게 얽어놓는다거나 기존의 시적 전통 혹은 관습을 타파하겠다고 언어의 파편을 흩어놓는 “유행”을 좇지 않고 “정직하게 쓰기”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시인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한 것으로 여겨지는 프로스트의 초기 시들이 제시하는 교훈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소박하기는 하지만 그리 명료하지는 않다. 아니,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료하게 추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얕은 얼음 조각을 통해 바라본”²⁾듯 흐릿해진다. 왜 그럴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프로스트 초기 시를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민들의 성실한 삶의 기록으로 보려던 초기의 비평적 경향에서 벗어나면서 등장인물들의 이중적 성격이나 인간적인 결함 등을 드러내는 시로 읽어내는 비평적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캐럴 프로스트(Carol Frost)나 프리실라 페이튼(Priscilla Paton)처럼 화자 혹은 등장인물의 ‘어조’ 또는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도시와 전원 사이 그리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가 안정된 의미의 단일한 교훈 혹은 주제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석은 프로스트를 청교도주의를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정체성을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재규정하려 했던 20세기 초반 미국 모더니스트들과 같은 관심사를 추구했던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어조’라는 형식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들은 결국 이 형식적 특징을 ‘불가지론’(캐럴 프로스트), ‘도농갈등을 둘러싼 미국 정체성에 대한 기존 관념에 대한 의심’(페이튼)이라는 여전히 미국적 ‘내용’을 제시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내용상의 동시대성을 지적하는 이들과 달리, 프랭크 렌트리키아(Frank Lentricchia)는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수사적 장치 자체를 프로스트가 미국 모더니스트로서 처했던 문화적, 재정적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간주함으로써 프로스트 초기 시에서 형식상의 특징을 시작법 혹은 독법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메타적 진술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렌트리키아의 분석에 따르면, 「가지 않은 길」에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는 미국의 고전적인 가치를 읽어내려는 대중의 독법은 프로스트가 의도적으로 텍스트

2) Robert Frost, “After Apple-Picking,” 70.

내에 배치해놓은 서사적 불일치에 의해 방해받게 된다(66). 다시 말해, 화자가 전달하는 듯한 교훈이 화자의 말하는 방식 자체에 의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렌트리키아의 이런 독법은 프로스트의 초기 시에서 화자가 직접 관계를 맺거나 언급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서사뿐만 아니라³⁾ 흔히 프로스트 본인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화자 자신의 독백의 신빙성을 문제시함으로써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화자들 역시 개인적인 편견이나 결함, 혹은 사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서사행위를 하는 등장인물들로 읽어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렌트리키아가 「가지 않은 길」을 읽으면서 지적인 텍스트 자체의 균열을 프로스트의 다른 초기 시들에서도 확인하고자 한다.⁴⁾ 이 작업은 프로스트가 화자의 권위를 메타적으로 의심하는 모더니즘적 관심사를 갖게 된 시점을 「가지 않은 길」이 출판된 1915년, 즉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의 시점으로부터 훨씬 이전으로 옮겨놓음으로써 프로스트를 아예 모더니스트로 출발한 시인으로 재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교훈 혹은 ‘인생에 대한 단순하고 소박한 진리’를 전달하는 듯 보이는 것들이다. 일단, 「일꾼의 죽음」(“The Death of the Hired Man”)처럼 일반적인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를 제시하는 텍스트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그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왜곡시키는 등장인물 자신의 사적인 욕망이 전면에서 부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가 단순하게 자신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들, 즉 세계에 대한 화자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제시하지 않는 텍스트들도 제외된다. 이 논문은 프로스트의 초기 시에서 일견 명료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교훈이 전달되는 방식, 다시 말해 텍스트 자체의 결이 감추고 있는 교훈을 획득하는 과정상의 오류로 인해 그 교훈의 설득력이 텍스트 자체에 의해 훼손되는 종류의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텍스트로서 이 논문은 「담장을 고치며」(“Mending Wall”)와 「눈오는 밤 숲가에 멈춰서

3) 앞서 언급했던 캐럴 프로스트나 프리실라 페이튼이 주로 분석하는 주체다.

4) 본론에서 다시 언급되었지만, 렌트리키아는 「가지 않은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타적 진술이 이 작품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암시한다.

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그리고 「가지 않은 길」을 주목한다.

II .

「담장을 고치며」는 프로스트의 초기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만큼 많은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은 주로 ‘담장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프로스트는 담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한다. 화자 혹은 시인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인간관/자연관 혹은 성적취향 아니면 심리적 위기관리방식에 근거하여 ‘담장 필요’ 혹은 ‘담장 불필요’를 주제로 읽어내는 것이다.⁵⁾ 하지만 시인 프로스트의 경험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교훈을 명료하게 추출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하게 되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⁶⁾

겨우내 담장은 지반이 서리로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바람에 군데 군데 허물어지게 된다. 화자는 이 현상을 “요정”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담장을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뭔가, 담을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
담 밑의 땅을 얼려서 부풀리고는,
해가 나면 담 위쪽 돌맹이들을 굴러 떨어뜨리는 거야,
해서, 두 사람이 나란히 통과할 만큼 틈을 만들어놓는 거지.

-
- 5) 첫 번째는 현영민, 설태수(2002), 윌리엄 워드(William S. Ward), 매어리 보로프(Marie Borroff) 등, 두 번째는 노먼 홀랜드(Norman Holland)와 에드워드 제인(Edward Jayne), 세 번째는 리사 힌리센(Lisa Hinrichsen)을 예로 들 수 있다.
- 6) 에드워드 제인(Edward Jayne)에 의하면 프로스트의 실제 삶에 있어서 앞서서 담장을 쳤던 사람은 이웃이었던 나폴레온 게이(Napoleon Guay)였다. 이 시의 화자는 프로스트가 아닌 것이다. 프로스트의 전기적 사실은 이 시의 모티프를 제공했을 뿐 화자는 프로스트의 창조물인 것이다. 프로스트의 초기 시들이 시인의 농사경험에 기초한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시의 화자들을 프로스트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That sends the frozen-ground-swell under it,
And spill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39).

봄이 되어 이웃과 함께 담장을 수리하면서 화자는 담장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는 이웃의 생각을 물어본다. 하지만 이웃은 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해묵은 격언인 “담장이 좋아야 이웃이 좋은 법이지요”(“Good fences make good neighbours”)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런 이웃이 화자에게는 반성적 사고능력이 결여된 구석기 시대의 미련통이로 보인다.

나는 건너편의 이웃을 지켜본다.
한 손에 하나씩 돌맹이 윗부분을 움켜쥐고 이쪽으로
들고 온고 있다. 무장한 구석기 야만인 같다.
저 사람은 어둠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숲 속의 그늘로만은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보지 않을 것이다.
마침 이웃은 그 말이 생각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다시 한 번 말해본다. “담이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지요.”

I see him there
Bringing a stone grasped firmly by the top
In each hand, like an old-stone savage armed.
He moves in darkness as it seems to me,
Not of woods only and the shade of trees.
He will not go behind his father's saying,
And he likes having thought of it so well
He says again,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urs“(40).

이 대결구도에서 독자는 화자와 같은 편이 되기 쉽다. 서사의 시작이 자연과 담장의 대결구도인 이 서사에서 이미 화자는 마치 초월적인 힘을 빌어 서사를 시작하는 서사시의 화자처럼 자연이라는 세력의 후광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담장을 싫어한다. 화자도 담장을 다시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한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유머와 기지를 겸비한 사람으로 제시된다. 돌맹이가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주문을 원드는가("We have to use a spell to make them balance: / "Stay where you are until our backs are turned!"), '솔방울을 집어먹는 사과나무'의 개연성을 언급하며 담장의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My apple trees will never get across / And eat the cones under his pines, I tell him")가 특히 그렇다. 유머와 기지를 갖춘 자연의 대변인인 화자와 미혹의 그늘 아래 돌맹이를 움켜쥐고 선 네안테르탈인 이웃 사이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두 개의 사고방식에서 후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독자가 있을까?

하지만, 묘하게도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개방적이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온고이지신'이란 교훈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이웃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이다. 텍스트 전체를 통해 이웃은 네안테르탈인의 낙인에 값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담장을 고치러 나온 것도 이웃인 화자의 기별을 듣고서였다. 담장에 목매는 사람은 이웃이 아닌 화자다. 에드워드 제인에게서 이름 때문에 동성애자로 오해받는 게이의 시적 등장인물인 이웃을(950) 돌맹이를 움켜쥔 구석기인으로 규정하는 화자의 직접적인 근거 역시 화자 자신의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흐트러진 담장을 고치려면 돌맹이를 움켜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담장이 숲가로 이어진다면 네안테르탈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숲 그늘을 피하면서 오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말을 무반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말("He will not go behind his father's saying") 역시 적어도 텍스트 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따라서 화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

그렇다면, 같은 격언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재주 없음이 이웃의 하마티아

(harmatia)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웃은 왜 자신의 주관이 투사된 개인적인 목소리가 아닌 속담으로 화자에게 대꾸했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화자가 이웃에게서 이 말을 듣게 되는 정황은 화자의 유머와 기지가 존 단(John Donne)의 시에서나 불 법한 기상(conceit)으로 터져나왔을 때였다. ‘술방울 먹는 사과나무’라는 생각은 그것이 담긴 진술 이전의 두 사람의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유머였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봄이면 의례 해야 하는 의무적인 노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친밀도가 그런 황당한 비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넘길 수 있을 정도까지 고조되었다는 증거가 텍스트에는 없다. 의무적인 노동을 야외 놀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저 혼자 기분이 한껏 고조된 화자가 창졸간에 내뱉은 황당한 비유를 적당한 수준의 비유를 섞어가며 개인적인 목소리를 담은 말로 대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 두 번째로 같은 속담을 내뱉을 때의 이웃 역시 정당하다. 이때 화자는 이미 장난기가 발동된 상태였고(“mischief in me”), 이 장난기는 담장의 효용을 설하는 화자의 어조(“If I put a notion in his head”)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아마 봄이라서 그런지 내 속에 장난기가 발동했고, 나는
그에게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왜 담이 좋아야 이웃 사이가 좋다는 거죠? 그건
소매가 있는 데서나 그런 것 아닌가요? 여긴 소가 없잖아요.
저라면 담을 쌓기 전에 분명히 확인해두고 싶어요,
무엇이 담 안이 되고 바깥이 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누굴 언짢게 할 것인지 말이에요.
뭔가 담을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담을 무너뜨리고 싶어하죠.“ 나는 그에게 ”요정들이죠“라고 말해줄 수
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요정들은 아니다. 그리고 난 차라리
그가 직접 그 단어를 말했으면 하고 바랬다.

7) 「상상하는 귀」(“The Imagining Ear”)에서 프로스트 역시 “Oh, just another kind of outdoor game, / One on a side”를 “장난스런 어조”(Playful note)라고 설명하고 있다(689).

Spring is the mischief in me, and I wonder
 If I could put a notion in his head:
 "Why do they make good neighbours? Isn't it
 Where there are cows? But here there are no cows.
 Before I built a wall I'd ask to know
 What I was walling in or walling out,
 And to whom I was like to give offence.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That wants it down." I could say "Elves" to him,
 But it's not elves exactly, and I'd rather
 He said it for himself(39-40).

말꼬리를 잡아 따져 묻고, 먼저 담장을 고치자고 날을 잡았던 사람이 담장의 필요를 운운하고, “그 ‘무언가’는 뭐지?”라고 물으면서 이웃이 화자의 설명을 알아듣고 나아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상위의 차원으로 생각의 지평을 넓히길 바라는 듯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명백한, 짧은 침묵으로 자신의 말에 마침표를 찍는 화자는 상대에 대한 지적우위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이웃은 화자의 자신감과 자아도취로 능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능멸에 이웃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제 생각에는...”으로 시작하는 대꾸를 하는 순간 이웃은 (자신이 보기에 혹은 적어도 텍스트 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화자의 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던져줬던 속담, 그림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침묵과 같아진 진술을 되풀이 하는 것이 이 정황에서는 더 없이 적절한 대꾸인 듯하다.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불순한 의도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진술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화자는 이웃의 말을 곡해한다. ‘인습에 얽매인 야만인 같으니’라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농부-시인-철학자이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화자가 노동의 계기와 자연현상에서 독자에게 떠넘기는 교훈들은, 따라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돌 틈에서 토끼를 몰아내기 위해 사냥개를 풀어놓는 끈들을 미워

하면서 구석기의 그늘에서 이웃을 해방시키기 위해 어설플 화술을 동원하는 화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더글러스 윌슨(Douglas L. Wilson)은 옳아 보인다(75). 실제로 「담장을 고치며」에서 회화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장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는 독자들의 시선은 프로스트가 텍스트 위에 설치해 놓은 “얇은 얼음조각”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농부-시인-철학자라는 제퍼슨(Thomas Jefferson) 류의 이상적인 미국인의 탈을 쓴 화자와 기꺼이 동일시하려는 충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 지극히 무신경한 화자의 회화화된 모습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서정시, 특히 짧은 일화와 서사의 단편을 제시하는 시에서는 화자의 진술이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서정시 화자의 주관적 해석과 독단은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화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느냐에 달린 것이다. 프로스트의 마지막 시집 『개간지에서』(In the Clearing)에 실린 「위대한 성공의 전야에 쓴 실의의 시」(“Lines Written in Dejection on the Eve of Great Success”)를 예로 들어보자. ‘후기’(“POSTSCRIPT”)를 제외한 본문은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연의 관계는 위즈워드의 「난 선잠으로 잠시 넋을 잃었네」(“A Slumber Did My Spirit Seal”)에서와 같이 시간성에 기초한 아이러니다. 이전에 어리석게 여겨졌던 행동이 현재 대단하다고 여기는 행동보다 우월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럼으로써, 즉 부정의 부정이란 공식을 통해, 현재의 ‘대단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가 입증된다. 이 증명의 과정에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언젠가 내 암소가 달을 훌쩍 뛰어넘은 적이 있었지,
달 위가 아니라 달 너머로 말이야.
도대체 뭇 땀에 그 소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몰랐어.
내내 토끼풀만 먹었을 뿐이었거든.

그땐 내가 대모 구스의 동화책을 읽던 시절이었지.
하지만 지금 우린 좀 더 거위다워졌고

광물질 주스로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아직 내 소를 따라잡진 못했어.

I once had a cow that jumped over the moon,
Not on to the moon but over.
I didn't know what made her so lunar a loon;
All she'd been having was clover.

That was back in the days of my godmother Goose.
But though we are goosier now,
And all tanked up with mineral juice,
We haven't caught up with my cow. (471)

옛날 암소가 달을 뛰어 넘었다. 화자는 이 일이 우습고도 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so lunar a loon"). 암소가 달 너머로 뛰어오를 이유는 없다. 달에는 구유도 없고 수소도 없다는 것을 화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뛰어올랐으므로 어리석은(lunar) 짓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화자가 어렸던 그 시절에 비해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더 잘 날고("goosier") 더 강하고 빨라졌다("tanked with mineral juice").⁸⁾ 그렇지만 인간이 달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은 내일이나 올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달에 가닿지도 못한 것이다. 인간의 달착륙을 두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화자가 보기엔 옛날에 암소가 이루었던 것보다 덜한 것을 해내는 것으로 의기양양해 하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인간은 암소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러나 달과 관련된 경주에서 인간은 암소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인간은 암소보다 못한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는 달을 매개로 해 암소와 인간을 비교하는 화자의 준거들을

8) goosy는 '거위같다'는 의미와 동시에 '어리석다,' '건망증이 심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모테카이 마커스(Mordecai Marcus)의 설명처럼 이 시가 우주비행 계획에 관한 진술임을 고려할 때 이 "goosy"는 우주선 발사체의 유선형 외관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mineral juice"를 '석유(石油)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마커스의 설명은 *Robert Frost Encyclopedia*에서 재인용(188). 첫 행을 포함하여 이 시의 내용과 마더 구스 동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레슬리(Lee Francis Lesley)의 논문 참조.

기반으로 발생한다. 이런 준거들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종류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의 판단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암소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어리석음 둘 다 나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각각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프로스트의 시에도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시 전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고, 따라서 주제와 관련된 교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⁹⁾ 서사 구조를 가진 것들도 있다.

하지만 프로스트의 초기 시집들에는 정당하지 못한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생살이의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교훈을 제시하는 듯한 시들이 여럿 있다. 윌리엄 셔(Wiliam S. Shurr)가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지 않느냐’ (“a moratorium for criticism”)고 말할 만큼(584) 많은 주목을 받아온 「눈 오는 밤 숲가에 멈춰 서서」 역시 마찬가지다. 셔가 정리하고 있는 바대로, 이 시의 평자들은 대부분 이 시의 주제로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자각,’ ‘죽음충동의 극복,’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인식’ 등 크게 보아 세 가지를 제시한다.¹⁰⁾ 프로스트가 읽었다고 짐작되는 헨리 본(Henry Vaughan)의 시와 윌리엄 제임스(Wiliam James)의 심리학을 이용하여 셔 본인이 덧붙태는 주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와 유사한 ‘종교적 초월성의 추구’다. 이들 다양한 비평의 공통점은 ‘어두운 밤 화자가 숲가에서 겪는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은 화자가 숲의 전모를 응시하게 되는 마지막 연이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그리고 깊다.

하지만 난 지켜야할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한참을 더 가야 잠들 수 있다.

그리고 한참을 더 가야 잠들 수 있다.

9) 당연히, 소가 달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보는 화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한낱 미물로서 영웅적인 노력이로세!”). 문제는 화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느냐이다.

10) 이들 주제들은 각각, 대표적으로, 루이스 운터마이어(Louis Untermeyer), 존 키아르디(John Ciardi), 그리고 로버트 랭봄(Robert Langbaum) 등이 제시하는 것들이다. 셔(584-86) 참조.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207).

실제로, 마지막 연의 첫 행은 이 시 전체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구절이다. 위의 평자들이 주목하듯이 이 행은 마지막 두 줄에서 제시되는 되됨의 내용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되됨 자체의 강박성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 준다. 어떤 알레고리 혹은 상징으로 해석되든 화자는 숲에 '매혹'되고, 그 매혹을 떨쳐내기 위해 되됨 만큼의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특징으로도 이 행은 독자의 주목을 받게 된다. 1연에서부터 약간의 아이엠빅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되던 호흡이 이 행에 와서는 쉽표의 사용으로 인해 주춤거리게 되어 있다. 서사의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연과 2년까지 화자의 의식은 자신의 내면에 잠겨있다('숲 주인이 누구더라'/'말이 이상하게 생각하겠군'). 그러다 3연에서 말방울 소리를 계기로 화자의 의식은 외부로 향해 열리게 된다(바람 소리/눈 내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이 지점에 와서 화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내면의 상념에 빠져들게 했던 실체로서의 숲을 그 자체로서 인지하게 된다. 서사의 시작을 있게 했던 형상인이 제시되는 지점인 것이다. 이렇듯 이 시 전체의 서사구조와 형식적 특징에 주목하게 되면, 많은 비평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숲은 무엇인가' 그리고 '화자는 왜 숲가에 멈춰 섰는가'라는 질문에 골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의 차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차이에 불과하다.

화자의 '숲가에서의 경험'을 중요한 사건으로 만드는 또 다른 서사장치가 있다. 숲을 바라보는 화자의 행위 자체를 보다 인간적인 혹은 가치 있는 행위로 제시하는 구도가 그것이다. 설태수(2010, 182)는 물론 거의 모든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시에서는 '숲에 대한 태도/시각'에 따라 세 부류로 구분되는 인간/주체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세 주체들은 숲이라는 대상과 맺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 바로 숲의 주인, 조랑말, 그리고 화자이다. 숲의 주인은 숲을 '소유'한다. 그러나 화자처럼 눈 내리는

숲의 정경을 감상하지 않는다. 숲 주인은 화자처럼 숲에 근접해 있지 않으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화자와 같은 방식으로 숲과 관계맺지 않는 것이다. 말은 숲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 혹은 관계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다(“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 To stop [...] /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숲의 의의를 인식하고 숲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화자와 숲 주인은 조랑말과 구분된다. 한편, 숲 주인은 숲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로서 인식하고, 화자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건 미학적인 것이건 아니면 생태학적인 것이건, 경제적 가치 혹은 유용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신적인 가치로서 인지한다. 그리고 숲을 보면서 이러한 ‘정신적 가치’(많은 비평가들이 찾아내려고 했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다른 두 존재들과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월한 혹은 더 인간다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가 ‘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숲을 바라보는 화자의 행위는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과연 말이나 숲 주인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다시 말해 눈 오는 밤 외딴 숲가에 멈춰 서서 숲의 “사랑스러움”과 “어두움”을 경험하는¹¹⁾ 행위를 하는 존재는 화자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음’이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말과 숲 주인에 대한 모든 진술은 화자 자신의 것이고, 이 진술의 내용은 모두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면서 최소한의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숲 주인이 ‘경제적 유용성으로만 숲과 관계 맺는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제1연이다.

이게 누구의 숲인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
 그는 내가 여기 멈춰 선 걸 보지 못할 거야,
 그의 숲에 눈이 쌓이는 걸 지켜보는 날 말이야.

11) “사랑스러운”(lovely)과 “어둡고 깊은”(dark and deep)이란 어구 자체가 각각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구분한 숭엄과 미의 전형적인 특질을 묘사하는 어구였음을 고려할 때 이 시의 화자가 숲에 대해 느꼈던 정서는 숭엄한 것과 미적인 것의 괴물 같은 결합의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207).

현재 화자는 숲에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본다(watch). 하지만 숲 주인은 마을의 집에 있어 숲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숲 주인은 ‘숲에서 화자가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눈 오는 밤 집에 머문다고 해서 숲 주인은 숲과 경제적인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도 있고 다른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숲 주인이 숲을 벌채한 흔적이 보인다고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작업을 해놓은 것이 보고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여기서 자신이 숲 앞에 있고 숲 주인은 숲 앞에 있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though)이라는 접속부사의 존재가 화자의 은근한 우울감을 암시해준다. 현재 이곳에 있어야 하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숲 주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연에서 화자는 현재 숲 주인이 자신처럼 숲 앞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언연중에 숲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소유’하는 숲 주인과 숲을 미적감상의 대상으로서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자신 사이에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 부당하게 화자와 대립적인 인물로 부각됨으로써 부정적인 가치를 뒤집어쓰게 되는 쪽은 화자가 아닌 숲 주인이다. 이 대립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는 존재가 바로 ‘무신경의 화신’인 화자의 말이다. 하지만 말의 생각을 읽고 있는 사람은 독자가 아닌 화자다. 따라서 독자가 숲 주인을 ‘돈만 아는...’으로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화자인 것이다. 물론, 말 역시 역울하다. 방울소리 한 번 울렸을 뿐이다. 그런데 주인은 ‘먹을 것과 쉴 곳’만 찾는, 말하자면 생명유지의 목적에만 매달릴 뿐 그 밖의 것(숲/자연/아름다움/종교적 체험 등)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로 규정되어버리는 것이다. 고개를 돌려 주인이 간식이 든 주머니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빨리 길을 떠나자고 발을 굴리지도 않은 말로선 역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 시에서 화자가 암시하는 말, 화자, 숲 주인 사이의 위계적인 대립관계는 화자의 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말, 숲 주인, 화자 사이의 대조적 관계는 이 시에서 마지막 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자가 숲을 바라보는 행위는 다른 존재들이 이해 못하는, 혹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거 없는 우월감에 휩싸인 화자, 판단의 주관성이 지나쳐서 거의 독단적이기까지 한 화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전달하려는 주제 혹은 인생살이에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인간으로서의 의무/종교적 체험/미적 체험/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어떤 것이건 상관없다) 역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두 행의 반복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비장미는 오히려 희극적인 과장된 연기처럼 보이게 된다. 독단적인 대립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요한 화자가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채 숲에 대한 매혹을 떨치고 여정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스트의 시 중에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만큼 시인과 화자를 일치시키기 쉬운 시는 없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씨전(Elizabeth Sergeant)은 이 시의 소재가 1912년 어떤 갈림길에서 있었던 프로스트의 실제 경험이었다고 추적하면서(88-89),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선택과 현재 시인으로서 성공한 프로스트의 입지를 연결시킨다(89). 그리고 이 시를 “‘선택의 중요성’ 혹은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의 강력한 미국식 개인주의에 대한 찬가로 읽어내는 많은 사람들은 씨전과 마찬가지로 시인 프로스트의 불굴의 의지 혹은 시인으로서의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등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¹²⁾ “사람들이 덜 다닌”(less traveled) 길을 선택하는 일종의 개척자 정신과 함께 이 주제는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먼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술회하는 지점에서 활용하는 어조에 의해

12) 이런 경향의 해석으로 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것(2009)으로는 양현철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자연의 역할」이 있다(196-97).

분명해진다. “나는, / 나는” 두 번 반복되는 데서 느껴지는 벽찬 감회와 함께 노년에서 오는 경험의 우위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먼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103).

하지만 화자의 이 말은 정작 실제 과거에 있었던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묘사하는 중간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2연에서 두 길은 “꼭 같이 아름다운 길”(as just as fair)로 보고되고, 3연에서는 “아무도 밟지 않은 나뭇잎으로 덮인 채 꼭 같이 놓여 있는”(equally lay /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두 길 중 자신이 선택했던 길을 노년에 가서 회고할 때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이었다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연에서의 화자의 다짐인 것이다.

사실 두 길의 상태와 관련된 화자의 진술이 문제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보어 윈터스(Yvor Winters)로 대표되는 신비평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 프로스트의 사고가 명료하지 못했던 결과로 판단한다. 프로스트는 에머슨(Waldo Emerson)과 쏘로우(Henry Thoreau)의 전통을 이어받되 그 전통의 ‘종교적 확신’은 놓쳐버리고 낭만적 감상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적 떠돌이(drifter)가 되었고, 따라서 ‘선택’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단순한 ‘충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564-65, 567-69). 이에 비해 신역사주의자인 렌트리키아는 프로스트가 대중적인 시인으로 인정

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동시에 당시 감상적인 시만을 찾던 미국의 독자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이중적 의도에서 이런 불일치를 시 텍스트에 짜 넣었을 것으로 추정한다(66). 1910년대 중반 젠틀 문학의 은유와 감상적 감수성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화롯가 시 형식”(the Fireside poetic form)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autonomous selfhood)을 찬양하는 주제(84)를 전달하는 것이 표면적인 구조라면, 그 주제의 안정성을 허물어뜨림으로서 “자주적으로 자신을 만들어 낸다는 의도의 허구성”(a fiction of autonomous self-making intention)을 내부에서, 은밀히 폭로하는 것이 이 불일치 부분이 핵심이 되는 심층구조라는 것이다(86-7). 따라서 렌트리키아는 모더니즘의 발아기인 20세기 초 미국의 시인으로서 프로스트가 파운드와 같은 ‘배고픈’ 아방가드의 길과 상업주의의 표상이자 모더니즘의 적인 대중시인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통해 제3의 길을 택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이라 주장한다. 존 서보이(John Savoie)는 윈터스와 렌트리키아의 해석 모두를 거부한다. 원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프로스트가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에 심취해 있었음을 전기적 사실들로 입증한 후, 서보이는 이 시가 의지와 실천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제임스의 실용주의 테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자의 진술이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는 두 길”(there is virtually no phys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roads)을 상대로 원초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을 한 주체의 (제임스의 책 제목과 같은) “믿고자하는 의지”(the will to believe)와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천력”(belief is consummated... in practical action, in quite simply going on)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그 두 길이 서로 달라진다는 제임스류의 실용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는 것이다(19-21).

두 길의 상태와 관련된 화자의 문제적인 진술에 대해서 윈터스, 렌트리키아, 서보이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윈터스와 서보이는 이 시와 관련하여 시인과 화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믿음이 허한 프로스트 또는 실용주의적 인식론에 통달한 프로스트를 이 시의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렌트리키아는 표면의 젠틀

문학적 주제와 숨겨진 젠틸 문학에 대한 모더니스트의 공격 의도(“a wolf in sheep's skin”)를 밝힘으로써 화자의 진술 뒤에 프로스트가 숨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84). 화자는 프로스트가 아니라 프로스트가 조종하는 일종의 장치인 것이다.

화자를 자신의 대변인이 아니라 등장인물로서 제시하며 그 등장인물을 통해 화자와 시인을 동일시하는 전통적이고 감상적인 독법을 공격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의도였다.¹³⁾ 그런 점에서 프로스트를 파운드와 달리 강력한 젠틸 문학 전통 '속'에서 그 전통을 '전복하려 했던 국내파 미국 모더니스트의 전형으로 재규정하는 렌트리키아의 노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프로스트의 이런 모더니즘적 전략이 1915년 8월 『월간 대서양』(Atlantic Monthly)에 기고할「가지 않은 길」을 쓸 때 즈음 개발됐다는 렌트리키아의 주장(82-3)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전에 출판되었던 「담장을 고치며」와 「눈 내리는 밤 숲가에 멈춰 서서」와 같은 시들 역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감상적인 교훈’을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희화화하고 전복시키는 서사전략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의 희화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프로스트는 존 던(John Donne)이 「벼룩」(“The Flea”)에서 처녀의 살 때문에 자신의 논리를 뒤집어버리는 화자를 통해, 그리고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이 「죽은 나의 공작부인」(“My Last Duchess”)에서 자신의 위엄과 고상함을 입증하느라 너무 애쓴 나머지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화자를 통해 자신들의 텍스트를 일종의 언어적 아이러니(verbal irony)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작업을 초기 시집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스트가 이들 시인들과 다른 점은 의도와 발화의 불일치를 전통적인 형식과 해석관습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프로스트의 초기 시들은 텍스트 자체의 형식을 전통적인 텍스트 구조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혹은 서사를 전개하는 주요 수단을 전통적인 은유체계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다른 모더니즘 시들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13) 줄고 「커밍스와 윌리엄스의 희화적 서사전략」, 『영미어문학논집』, Vol. 86 (2008) 참조.

III.

프로스트의 초기 시들에는 일견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 노동의 신성함과 즐거움 등 자유주의 이념의 가치들을 주제로 전달하는 듯 보이는 시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은 유사한 주제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전통적인 서정시의 형식, 즉 아이앰빅을 위주로 한 발라드 풍의 형식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트 본인이 최상층 지식인이면서도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았고, 그 농사 경험을 소재로 한 시를 썼다는 점 역시 독자들이 이들 시에서 농본주의에 기초한 미국식 자유주의 전통과 맥이 닿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지만 소박한 주제를 전달하는 듯 보이는 프로스트의 시들은 당대의 지배적 양식이었던 켈달 문학의 시처럼 그 주제를 간단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프로스트 본인이 아니라 등장인물로서 제시되는 화자가 찾아내는, 혹은 암시하는 인생 교훈을 전달하는 표면적인 구조 밑에 그 구조를 전복시키는 심층구조가 깔려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심층구조에는 화자가 특정 주제를 구축 혹은 암시하는 방식의 설득력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서사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파격적인 형식적 실험과는 거리가 멀었던 프로스트를 미국 모더니스트 시인의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준다.

❖ 참고 문헌

설태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초월주의적 비전」. 『영어영문학』, 제48권 2호(2002): 371-91.

_____.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서의 숲의 의미」. 『영어영문학 연구』 제52권 4호(2010. 12): 171-190.

- 양현철.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자연의 역할」. 『영어어문교육』, 15권 1호(2009년 봄): 187-202.
- 현영민. 「라즈니쉬에 비추어본 프로스트의 노동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17호(2007 가을, 겨울): 221-246.
- Ammons, A. R. "Corsons Inlet," *Collected Poems*:: 1951-71. New York: W. W. Norton and Co. Inc., 1972), 147-51.
- Amy Lowell. *Tendencies in Modern American Poetr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7.
- Burke, Edmund.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Ed. J. T. Boulton. Notre Dame: Notre Dame UP, 1968.
- Frost, Robert. *Robert Frost: Collected Poems, Prose, & Plays*. New York: Library Classics of the United States, Inc., 1995.
- Frost, Carol. "Frost's Way of Speaking," *New England Review*, Vol 23, No. 1 (Winter, 2002), 119-133.
- Gerber, Philip L. ed.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Boston: G. K. Hall & Co., 1982: 19-21.
- Hinrichsen, Lisa. "A Defensive Eye: Anxiety, Fear and Form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31, No. 3(Fall, 2008): 44-57.
- Jayne, Edward. "Mending Wall ": The Psychoanalysis of a Poem by Frost." *College English*, Vol. 34. No. 7(Apr., 1973): 934-51.
- Lentricchia, Frank. "Lyric in the Culture of Capitalism."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 No. 1 (Spring, 1989): 63-88.
- Lesley, Lee Francis. "Robert Frost and the Child: "Mother Goose and" "The Imagination Thing." *The Massachusetts Review*, Vol. 45, No. 2(Summer, 2004): 256-68.
- Paton, Priscilla. "Robert Frost and the American Landscape." *The Iowa Review*, Vol. 29, No. 2(Fall, 1999): 83-96.
- Pound, Ezra. "Modern Georgics."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Ed. Phi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19-21.
- Savoie, John. "A Poet's Quarrel: Jamesian Pragmatism and Frost's "The Road Not Taken." *The New England Quarterly*, Vol. 77, No. 1 (Mar., 2004):

5-24.

Sergeant, Elizabeth. *Robert Frost: The Trial by Exist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Shurr, William H. "Once more to the "Woods": A New Point of Entry into Frost's Most Famous Poem." *The New England Quarterly*, Vol 47, No. 4 (Dec., 1974): 584-94.

Wilson, Douglas L. "The Other Side of the Wall." *The Iowa Review*, Vol. 10, No. 1(Winter, 1979): 65-75.

Winters, Yvor. "Robert Frost: Or,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The Sewanee Review*, Vol. 56, No. 4 (Autumn, 1948): 564-96.

Zubizarreta, John and Nancy Lewis Tuten, eds. *Robert Frost Encyclopedia*.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 ABSTRACT

Procrustes in Disguise:
The Speakers in Robert Frost's Early Poems

Lee, Sam Chool

Robert Frost's poetry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fairly readable partly because of the simplicity or down-to-earth-ness of the messages that go along with the poet's projected public image and the 'traditional' forms he used. Against the grain of such general perception, this study reads some of the early poems of Robert Frost to re-characterize the beginning of the poet's career as a modernist attempt to challenge the dominant poetic conventions of the time: the genteel conventions. In reading the poems, this study focuses on frost's strategic method of using the speaker or persona regarding the delivery of meanings. Those readers who would like to find the immediate presence of Frost's voice in the poems, fail to distinguish the speaker and the poet, readily accepting the face value of what the speaker tries to convey: those messages which are in line with liberal individualism, like self-reliance, autonomous self, work ethics, etc. Frost's speakers, however, are rarely the mouthpiece of the poet himself. Rather, they are fictional characters who, while on the surface of the text appear to be hammering out a stable theme out of their everyday experience, under a heuristic scrutiny of the textual structure, turn out to be undermining the logic or the rationality of the theme, which can be identified as a modernist textual strategy that challenges the traditional conventions regarding the stability of meaning in a poetic text.

Key Words

로버트 프로스트, 「담장을 고치며」, 「눈 오는 밤 숲가에 멈춰 서서」, 「가지 않은 길」,
「위대한 성공의 전야에 쓴 실의의 시」

Robert Frost, "Mending Wall,"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The
Road Not Taken," "Lines Written in Dejection on the Eve of Great Success"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